



**추석 앞두고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마을회관 등  
에...5톤트럭 한 대분꼴**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를 수집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마을회관 등에 난방 연료로 제공하는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벌인다.

올해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추석 전에 시작해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산림청은 전국의 국립관리소와 시·군·구청 산림부서를 통해 5톤 트럭 1만5000대분인 7만5000m<sup>3</sup>의 숲가꾸기 산물을 1만500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가구당 5m<sup>3</sup>꼴로 5톤 트럭 한 대분씩을 지원 하는 셈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서로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땀감 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의 땀감 나누주기 세부 지원 사항은 시·군·구청 산림복지 부서 및 국립관리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에도 5만 9000m<sup>3</sup>의 숲가꾸기 부산물을 1만2000여 가구에 땀감으로 나눠준 바 있다.

**국립수목원 "9월의 나무 '붉나무', 9월의 풀 '석산'"**

-소금 대신 쓰는 붉나무, 빨간 단풍 좋아...석산은 마늘 닮아 '돌마늘'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9월의 나무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붉나무'를, 9월의 풀로는 '석산(石蒜, 꽃무릇)'을 각각 선정했다.

붉나무는 가을에 빨갛게 드는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다. 예전에 소금이 귀한 산간지방에서는 붉나무 열매와 가지를 쥘어 물에 우려낸 후 두부를 만드는 간수로 사용했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는 바닷물을 간수로 써 두부를 손쉽게 만들었지만 값비싼 소금을 구하기 어렵고 바닷물을 길어오기도 어려운 산간지방에서 무슨 수로 두부를 만들었을까. 궁금증의 해답은 바로 붉나무에 있다. 붉나무 열매와 가지에 흰 가루처럼 달리는 염분을 두부 만드는 간수로 사용했다. 열매와 가지를 짓찧어서 물에 담근 후 그 물을 사용한 것

이다. 그래서 붉나무를 염부목(鹽膚木)이라고도 하는데 짠맛이 난다는 데서 유래한다.

붉나무는 전국적으로 낮은 산에 흔히 자라는 중간키 나무다. 8~9월에 가지 끝 부분마다 황백색의 꽃을 피우는데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나무에서 달리며 열매는 10월에 영근다. 열매의 겉부분에는 흰색가루같은 물질이 생기며 소금처럼 짠맛이 있다. 10월에 드는 단풍은 붉은 색으로 매우 아름답다. 붉나무라는 이름은 단풍이 아름답기 때문에 붙여졌다.

약용으로 쓰이는데 잎자루 날개에 혹처럼 생긴 벌레주머니가 오배자라고 불리는 약재다. 뽕은맛을 내는 탄닌이 다량 함유돼 한방에서는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효과와 항균, 해독 등의 약재로 사용한다. 또 잉크와 천연염색의 원료로도 이용된다.

이달의 풀로 선정된 석산(꽃무릇)은 잎이 다 진 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연인에 비유된다. 석산은 '돌마늘'이라는 뜻으로 땅속의 인경이 마늘과 닮아 지어진 이름이고 꽃무릇은 '꽃이 무리지어 난다'해서 붙여진 것이다.

일본에서 들어와 주로 따뜻한 남쪽지방에서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절 부근에 많이 심고 있다. 절에 많이 심는 이유는 인경에 있는 독성분(알칼로이드)이 방부효과가 있어 사찰 도서의 줄 예방이나 불교 탕화 보존 등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석산이 유명한 사찰로는 전북 고창 선운사, 전남 영광 불갑사, 함평 용천사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매년 9월 중순 꽃무릇 축제가 열린다.

사람이 그냥 먹으면 구토,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지만 독성분을 제거하면 좋은 녹말을 얻을 수 있다. 한방에서는 비늘줄기를 인후 또는 편도선염, 림프절염·종기·악창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복막염과 흉막염에 구토제로 쓰기도 한다.

**산림청, 2011년 주요 산림소득사업  
내달 24일까지 공모**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75억원 투입 예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매년 실시하는 산림예산 배분 대상 사업자를 공모하는 '2011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이 다음달 24일까지 실시된다. 산림청은 지역의 임업 관련 특화 품목을 육성하고 성공가능한 임업인을 발굴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오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2009년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모대상 사업은 모두 3개로 총사업비 기준 3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에 11개소 내외를 선정, 110억원을 투입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분야에 뽑힌 45개소 내외의 사업에는 225억원을 지원한다. 또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은 4개소 내외를 선정해 4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절차는 먼저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기초 시·군·구·광역시·도)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자체 검토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산림청에 전자 결재 공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은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친 공모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 평가를 맡겨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공모는 다음달 24일 마감된다. 이후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9.27~10.1), 심사위원회 심사(10.6 예정)을 거쳐 10월 7일 최종 결과가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번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 신청자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자의 창의성 및 경영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공모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임업 사업자 및 단체를 선정해 산림소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FTA 발효로 인한 대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성공 가능한 임업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정부시,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의정부시가 민선5기 출범을 맞아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 그루씩 1백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경 시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유지 및 동네 유휴토지 등 새로운 식재공간을 발굴하여 나무심기를 확대하고 '나무은행', '찾아가는 정원수 상담센터'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 시 베어지거나 버려지는 나무를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 조성 등에 우선 활용하는 '나무은행' 사업은 금오동에 위치한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정원수 상담센터'는 각 가정의 정원에 대한 병충해 진단 및 관리 요령을 상담해 주는 사업으로 시청 공원녹지과 내에 설치한 상담센터(031-828-2402~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녹색도시 의정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정원수 상담센터'를 통해 산림 안병용시장의 시장방침 중 하나인 '시민에 대한 섬김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을철 나무심기, 용기묘 800만 그루 식재 (유휴토지 조림, 금강·안면소나무 육성 사업 진행)

10월부터 가을철 나무심기가 다시 시작된다.

산림청은 봄철(3월~4월)에 이어 가을철(10~11월)에도 나무심기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철 식재에 적합한 용기묘와 분뜨기 묘목으로 4000ha의 나무심기를 할 예정이며, 소나무·상수리나무 등 800만 그루의 용기묘가 공급된다.

가을철 조림기간에는 용기묘를 이용한 경제림 조성과 함께 옫나무, 산초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는 '유휴토지 조림'과 '금강·안면소나무 육성' 사업 등이 진행된다.

유휴토지 조림은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에 나무심기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1ha당 254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유휴토지 조림이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금강·안면소나무 육성사업은 강원·경북 지역의 금강소나무와 충남 태안 지역 안면소나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

리나라 대표수종인 소나무를 고급 목재로 키우기 위해 숲가꾸기를 해주고, 용기묘 식재, 종자 파종, 천연하중 방법으로 후계림을 조성한다.

박은식 산림자원과장은 “봄철 못지않게 가을철도 나무심기에 좋은 계절”이라며 “국민들께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나무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청 내년 예산 1조 6615억 편성 (올해보다 2.5% 증액, 조림사업에 661억 편성)

산림청(청장 정광수)의 2011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5% 증가한 1조 6615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액수는 적으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산림품종 및 재종원 관리 사업 부문이다. 올해 47억원보다 88%나 늘어난 88억원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편성돼 1197억원이 배정됐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26억원이 반영됐다.

산림자원육성 분야에서는 숲가꾸기사업을 효율성 높은 정재숲가꾸기 사업 위주로 전환해 201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의 1850억원보다 11% 증가되었다. 또 산물수집을 확대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894억원을 편성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에 37%인 6195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7%인 4399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26%인 4323억원, 글로벌 산림자원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661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섬지역 산림가꾸기(14억원)와 산림재해복구조림(31억원) 사업비를 신규 반영했다.

내년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개최 등 굵직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에도 올해보다 102%가 늘어난 153억원이 편성되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목재펠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가 1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또 선진 임업기술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GPS장비 구입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실소요액 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904억원)와 자연휴양림조성관리 사업비(281억원)도 8%, 12%씩 각각 증액편성됐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4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의 재선충병 완전해제 사업비 110억원, 산불방지 대책 사업비 495억원, 산림보호 위한 헬기운영 사업비 449억원, 사방댐 사업비 1345억원,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연결 사업비 71억원 등이 새로운 예산안으로 조정됐다.

한편 재정사업평가에서 저평가된 사업인 국립수목원운영, 임업기능양성 산림서비스중진 산림경영계획작성 등의 분야는 지난해 보다 10~13% 각각 감소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011년도 정부예산(안)은 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 실현’이라는 산림청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여수, 깎지벌레 및 진딧물 피해 확산 (후박나무, 먼나무, 동백나무 등 조경수에서 발생)

여수시가 관내 가로조경수목(703천본)에 대해 해충 특별소탕작전을 펼친다.

이번 특별소탕작전은 후박나무, 먼나무, 동백나무, 홍가시, 철쭉 등 가로수와 조경수 식재지 전 구간에 깎지벌레와 진딧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실시된다.

깎지벌레가 나무에 하얗게 붙어 수액을 빨아먹게되면 영양부족으로 황화현상이 발생되고, 그을음병이 유발돼 나무에 조기낙엽을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이에 여수시에서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1차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 겨울철 월동기에 2차 기계유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남에 아름다운 숲 다모였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최다 수상)

전라남도는 전국의 아름다운 숲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대회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가 선정돼 천혜의 전남 숲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증됐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 숲, (주)유한김벌리가 공동 주관하는 올해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진도 관매도 해송림이 대상인 '생명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지역 5곳을 포함해 전국 1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 ▲해송숲

전남도 내 선정 숲은 영예의 대상인 생명상에 관매도 해송림을 비롯 장려상인 어울림상에 신안 안좌면 대리 우실 마을숲, 신안 자은면 백산리 여인송 숲, 여수 미평동의 편백림, 광양읍 광양서초등학교숲 등이 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생활 주변의 아름다운 숲을 찾아내 국민들에게 숲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으로 천년의숲, 전통 마을숲, 시민의숲, 학교숲 4개 부분과 네티즌이 선정하는 특별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전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담양 메타세콰이어 거리와 관방재림, 신안 증도면 우전리 해송숲 등 총 36개소가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돼 유명관광지로 육성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도내에 산재한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보존과 숲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경 포괄한 도시농업육성법 추진중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법제정을 내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송정섭 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는 지난 15일,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한 ‘한국도시농업연구회 2010 추계 심포지엄’에서 “현재 도시농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의 생활 속 원예활동 전부를 칭하며 여기에는 실내정원, 도시화단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정명일 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는 ‘옥상농원을 통한 전원을 꿈꾸다’를 주제로 옥상텃밭에 적합한 식물, 옥상농원의 분류, 관리요령 등을 발표했다. 정 박사는 “옥상농원 조성시, △건물의 하중, △음지성 작물 부적합, △바람에 의한 도복 우려, △관수에 대한 사전 검토, △안전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옥상텃밭의 작형에 따라 △재배기간이 긴 고추나, 토마토 등 과채류는 1년 1차례 배치, △상추와 같이 재배기간이 짧은 것은 여러차례 배치, △시금치, 배추와 같이 파종시기가 한정된 것은 작형 구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종합토론에서 최현실 소장(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은 “옥상농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이며, 서울시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옥상 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작년부터 유치원과 노인정을 대상으로 약 2만개의 상자텃밭을 보급해 이용가 95%가 만족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금년에도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조명래 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는 ‘도시텃밭 병해충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해충 관리에 관한 정보를 서술했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기술정보에서는 △주간 기상정보 및 작목별 관리방법, △병해충 발생 예상 정보 및 방제법, △친환경 유기농자재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